

<가족 제도>

1. 가족제도 2. 전전 가족제도(이에제도, 대가족제도)
3. 전후 가족제도(핵가족제도, 그 외 가족)

1. 가족제도

가족의 구성이나 기능 등에 관하여 국가, 지역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질서 또는 제도
가족 생활을 규제하는 법률, 도덕, 관습 등의 총체를 말하는 것

* 가족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인 사회집단

2. 전전 가족제도 -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모습

1. 이에제도

일본어에 카조쿠=가족 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메이지 시대이다. 그 이전에는 카조쿠라는 용어 대신 이에라는 말을 사용했다. 일본의 이에는 이에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관념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들은 이에의 영속을 위한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의 구성은 혼인, 혈연, 지연은 물론 각종의 의제(擬制)적 인간관계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비혈연자에게도 개방적이다. '이에'의 영속성은 현세적 공간에서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살고 있는 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에'의 조상들은 죽은 자에서 조상으로 다시 조상에서 조상신으로 살아 있는 자손들의 제사의 대상이 된다. 이에는 혈연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조직체를 중시합니다.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 역할 관계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일반적으로 농경정주 사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주 사회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농가를 경영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 이에를 가지고 서로 돕고 살면서 생활이 안정적이고, 편리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상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주체로 하면서도 과거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동거하는 예도 있었고, 비 혈연의 동거인도 이에의 일원으로 간주하여 가족과 같이 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에 의한 경영을 가업이라고 한다. 과거의 일본에서는 가족관계에 있지않은 사람이라도 이에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 특수합니다. 이에라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가업의 존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표기에 있어 한자 家로 쓰지 않고 히라가나 이에(いへ)로 쓰는 것은 가옥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이에는 우선집단이다. 대대로 연속되는 것을 지향하는 집단이고 이미 죽은 사람도 관념상으로는 포함된다. 이에는 시조가 있다. 이에를 일으킨 사람으로, 시조로부터 선대까지가 조상이고 제사와 숭배의 대상이 된다. 시조로부터 시작되어 대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이에의 자랑이고 앞으로도 대대로 번영하여 이어져 가는 것이 중시 된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제도로써 확립되어 법률, 도덕과 일체를 이루어 만들어진 것이 이에제도이다. 이에는 오래도록 이어지고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요소는 엄격히 배제되었다. 일본의 경우 <이에>의 개념으로서 혈연보다는 가업이나 가문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구성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가는

한국의 가와 크게 다른 것은 일본이 양자제도를 발달시켜 가계계승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 이에라 부르는 일본의 가는 한국 집과 같이 단순한 가족원의 동거집단이나 동제집단이 아니라, 그 집 특유의 전통과 명예를 가진 존재로 시간을 초월한 영속되어야 하는 실체인 것이다.

2. 대가족제도

과거에는 모든 가족이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대가족이란, 하나의 가옥 안에서 3대 이상의 직계친이나 방계친을 포함한 세대원이 동거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대가족 내에서는 위계질서를 확실히 잡는 엄격한 가부장적 권위로 다스려졌다. 이는 그만큼 남성의 권위를 강화시켜주었고 반대로 여성의 권위는 약해지게 하였다. 또한 대가족에서는 가계의 연속성이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계를 대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남자아이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만연해 있었고, 이 역시 여성의 권위를 낮추는 결과를 야기했다.

3. 전후 가족제도 - 여성의 권위가 향상되면서 부부 대등형 가족 지향형의 모습

1. 핵가족제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헌법·민법 등의 대대적인 개정과 경제, 사회, 문화의 급속한 변동 속에서 가족도 여러모로 변화하여 다양성을 보이게 되었다. 가족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의 폐지도 큰 의미를 가졌다. 현대 일본의 가족은 핵가족이 대표적이라고 말하여진다. 일상생활의 단위가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되고 결혼에 의해 젊은부부는 새로운 단위가 되어 따로 산다는 점만을 보면 이는 핵가족이다. 현대일본의 가족은 핵가족이 대표적이다. 일상생활의 단위가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되고 결혼에 의해 젊은 부부는 새로운 가족 단위가 되어 별거한다는 점만 보면 이것은 핵가족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도시가 발달하자 농촌에 있던 젊은 계층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도시에 이주한 젊은이들은 대가족을 유지하기 보다는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소가족, 즉 핵가족 형태의 가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개인주의, 사회적 이동성 및 사회 보장 제도의 발전으로 핵가족화가 촉진된 것이다. 핵가족 내에서는 남성 위주의 생활이라기보다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 서서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완전한 남녀평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여성의 권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 외 가족

오늘날에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가족의 개념 및 형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출생률 및 결혼률의 저하, 이혼율의 상승, 동거의 증가, 혼외 출생률의 상승 등의 현상을 들 수 있다

1. 맞벌이부부

맞벌이는 부부가 함께 고용하고 일을 하는 것이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욕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진출도 활발해 졌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초래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자녀 교육비의 증가로 금전적인 측

면에서 부담이 점점 커지자, 여성의 노동력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맞벌이부부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부인이 함께 일해서 돈을 벌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2020년 맞벌이 가구는 1240가구, 전업 주부 가구는 571만 가구로 2배의 차이가 날 만큼 맞벌이 부부가 많다.

2. 편부모가족

이혼율의 상승으로 생겨났다. 한부모가족이라고도 부른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한쪽 어느 하나로 아이의 가정을 말한다. 어머니와 아동의 가정을 모자 세대 또는 모자 가정이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아동의 가정을 부자 세대 또는 부자 가정이라고도 한다. 히토리친가구 이유는 이혼이 8할, 나머지 2할은 사별 또는 미혼이다. 미혼의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편부모가족은 2016년 기준 모자 세대 123.2만 가구, 부자 세대가 18.7만 가구이다. 일본에서는 동성 간의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 커플이 아이를 가진 경우에도 히토리친가구로 속할 수 있다.

3. 입양가족

입양은 구체적인 혈연 관계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부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는 두가지 입양이 있다. 보통입양, 특별 입양. 보통입양은 입양 자녀가 호적상은 부모와 관계가 남아 이중의 부자 관계가 결연된다. 특별 입양은 입양이 호적도 부모와 관계를 끊고 친자식과 동일하게 취급한 결연이다.

4. 재혼가족

이혼율의 상승으로 편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이런 편부모가족끼리 또는 편부모가족과 재혼을 하는 경우 재혼가족이 생겨나고있다. 재혼에 의해서 형성된 가족이나 최소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전의 결혼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형성한 가족을 말한다.

5. 독신가족

출생률 및 결혼률의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혼자 사는 독신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독신가족은 미혼 혹은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로 혼인 관계가 없는 상태 또는 그 사람(독신자), 20대 후반 및 30대 독신률도 늘고 있다. 후생 노동성 발표의 2005년 통계에서는 남성 30~34세의 미혼율은 47.1 % 여성 25~29세의 미혼율은 59.0%등이다. 결혼 "못한다"이유로는 남녀 함께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않는다"이 1위, 남자는 2위에 "결혼 자금이 부족한 "이 돌출했다. 반면 결혼 "하지 않는다"이유로는 남녀 모두 "자유, 편안함을 잃고 싶지 않아"이 1위,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가 2위다. 일본에서는 근년, 저출산 이 큰 사회 문제 가 되고 있지만 이유 중 하나로 독신의 증가를 든다. 일본에서는 혼외자 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있으면 아이 를 이루기 어렵다. 그 게 저출산의 원인이다. 또 일본에서는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 도 진행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만, 여성 는 일반적으로 남자 보다 평균 수명 이 길기 때문에 남편의 사후 길게 혼자 사는 여성도 늘고 있다. 황혼 이혼 에 의한 독신이 된 노인 도 적지 않다.

[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E5%AE%B6%E6%97%8F>

<https://ja.wikipedia.org/w/index.php?search=%E7%89%87%E8%A6%AA%E5%AE%B6%E6%97%8F&title=%E7%89%B9%E5%88%A5%3A%E6%A4%9C%E7%B4%A2&go=%E8%A1%A8%E7%A4%BA&ns=1>

<https://ja.wikipedia.org/wiki/%E7%B5%90%E5%A9%9A>

<https://ja.wikipedia.org/wiki/%E5%85%B1%E5%83%8D%E3%81%8D>

<https://ja.wikipedia.org/w/index.php?search=%E7%8D%A8%E8%BA%AB&title=%E7%89%B9%E5%88%A5%3A%E6%A4%9C%E7%B4%A2&go=%E8%A1%A8%E7%A4%BA&ns=1>

일본 과거와 현재 비교

22202063 김나운

“핵 가족”은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생각하지만, “부부만”, “남편과 아내, 자녀”, “남성 부모 또는 여성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원자력 가족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남편과 아내,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수는 1970년 41.2%에서 2010년 27.9%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부만 있는 가구는 9.8%에서 19.8%로 크게 증가했으며, 1세대는 20.3%에서 32.4%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에는 '남편과 아내, 자녀'(27.9%)로 구성된 가구보다 혼자 사는 가구(32.4%)가 더 많았으며, 이른바 '가족'의 대표라는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일본의 대표적인 가족 구조는 무엇입니까? '혼자 산다', '부부와 자녀'의 30% 이상이 30% 미만, '부부만'은 20% 미만, '3세대 등 핵가족 외 상대 가구'는 약 10%, '남성부모·여성부모와 자녀'는 10% 미만이다.

일본은 과거와 현재 가정식들이 거의 비슷하다. 과거엔 밥과 된장국이 필수였으며 거기에 츠키모노를 곁들여 주로 먹었다. 현재도 밥과 된장국, 생선, 츠키모노를 곁들여 먹으나 빵과 커피, 토스트 등을 먹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 주택 종류로는 단독주택, 아파트 등등이 있으며 주로 2층인 집이 많다. 각 집마다 주차장은 거의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집의 대부분은 최근까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점점 더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 프레임주택이 있다. 과거와 현재 집 형태는 거의 비슷하며, 외관으로 보면 옛날은 초가집 느낌이었으며 현재는 모던한 주택 느낌이다. 집 구조로는 계단과 현관, 복도, 밖에는 주차장이 거의 필수로 있으며 1층엔 계단과 거실, 현관 등이 있고 2층은 주로 침실로 사용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남자가 주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일을 하지않고 육아를 하였다. 하지만 점점 맞벌이부부 형식으로 바뀌게되며 여자들도 일을 하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르는게 대부분인데 지금은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의 성을 따를지 여자의 성을 따를지 결정할 수도 있다.

[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3%81%AE%E6%96%87%E5%8>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족문화 비교

22237261 윤정

1. 일본과 우리나라의 결혼문화

우리나라의 결혼은 보통 상견례 → 결혼식 → 신혼여행 → 혼인신고 순서로 진행이 되고 일본의 결혼은 보통 결납식 → 혼인신고 → 결혼식 → 신혼여행 순서로 진행이 된다.

결납식의 결납은 신랑이 신부가 될 여자에게 보내는 결혼의 증표이자 신부를 길러주신 신부의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여자는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 남자는 양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과 기독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혼인신고나 동거를 먼저 했을 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대부분 결혼식 후의 혼인신고를 한다. 일본은 결혼본식보다 혼인신고가 결혼의 정식표명에 가까워 대부분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패스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또 일본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되는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입적하다'라고 표현한다. 최근에는 부부별 성을 실현하고자 사실혼을 선택하는 커플들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결혼 전 청첩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며 참석여부 또한 자유롭다. 하지만 일본은 최소한의 지인만 초대하고 하객들의 자리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의 하객들의 참석여부 또한 중요하다.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답장을 보내야 하며 그것을 보며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의 자리를 정한다.

우리나라는 축의금이 자유로운 편인 반면 일본은 인당 2~3만엔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30만원 이상의 돈을 축의금으로 내야한다고 한다. 신부와 신랑은 비싼 축의금을 받는 대신 1~2만엔 상당의 '히키데모노' 라는 답례품과 맛있는 음식들을 하객들에게 대접한다.

2.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업문화

일본에 가면 50년, 100년 그보다 오래된 가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 일본의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도 가업을 물려받아 일을 하는 캐릭터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에도시대의 신분제도 중 '죠닌' 이라는 신분은 도시에 거주하던 장인, 상인의 총칭으로 비교적 낮은 신분에 위치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죠닌의 기술이 독보적이라면 그 죠닌을 존경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에 상관없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어깨너머로 배우는 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가 상당하기에 '이에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일본의 장수기업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가업승계의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세대에 의한 부담감이 상당하며 6.25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가업 승계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의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가업문화가 일본에 비해 발달 되어 있지 않다.

3. 일본과 우리나라의 목욕문화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해 거의 365일 욕조에 물을 받아 놓는다. 또 물을 절약하기 위해 페트병같은 것을 띄워놓기도 한다. 일본에는 '오이다키' 라는 시스템이 있어 물이 항상 욕조에 채워져 있어도 그 물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물을 데우고 나서 욕조 덮개를 덮어 욕조물의 온도를 유지한다. 일본은 온가족이 목욕물을 같이쓰는데 일본은 남성우 월주의인 남존여비사상이 남아있어 아빠, 아들, 딸, 엄마 순서로 목욕을 한다. 이런 일본의 가정집은 욕실과 세면대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때밀이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때를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목욕을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목욕보다 샤워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일본과 달리 화장실에 변기, 샤워시설, 세면대가 모두 있다.

4. 일본과 우리나라의 장례문화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매장식 장례가 전통적이다. 또 우리나라는 고인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다. 일본은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장례를 치를 때 염주를 차고 치르며 츠야라는 의식을 치른다. 츠야는 원래 고인을 묻기 전에 친족이나 친지가 밤새워 사망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했다. 츠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승려가 독경을 시작하고 얼마 후 친족이나 회장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쇼코가 이루어진다. 일본은 대부분 화장식 장례가 이루어지고 일본은 법적으로 고인이 죽은지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화장을 시키지 않고 모든 고별식과 의식을 마치면 고인을 화장터로 옮긴다. 이때 달력에 도모비키라고 써진 날은 고인이 친한 친구를 함께 데려간다 하여 화장을 할 수 없다.

<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E7%94%BA%E4%BA%BA>

<https://ja.wikipedia.org/wiki/%E7%B5%90%E5%A9%9A>

<https://ja.wikipedia.org/wiki/%E7%B5%90%E7%B4%8D>

https://search.yahoo.co.jp/search?p=%E6%97%A5%E6%9C%AC%E3%81%AE%E7%B5%90%E5%A9%9A%E6%96%87%E5%8C%96&fr=top_gal_sa&ei=UTF-8&ts=1207&aq=-1&oq=&at=&ai=dfb84799-0009-4127-be9c-34b5b9b00855

https://search.yahoo.co.jp/search?p=%E6%97%A5%E6%9C%AC%E3%81%AE%E5%AE%B6%E6%A5%AD%E6%96%87%E5%8C%96&x=wrt&aq=-1&ai=c9234b92-a46a-4912-a723-8d6376c5bd3c&ts=3767&ei=UTF-8&fr=top_gal_sa

<https://ja.wikipedia.org/wiki/%E5%AE%B6%E6%A5%AD>

<https://brunch.co.kr/@consumer/39>

<https://ja.wikipedia.org/wiki/%E9%A2%A8%E5%91%82>

https://search.yahoo.co.jp/search?p=%E6%97%A5%E6%9C%AC%E3%81%AE%E3%81%8A%E9%A2%A8%E5%91%82%E6%96%87%E5%8C%96&fr=top_gal_sa&ei=UTF-8&ts=3235&aq=-1&oq=&at=&ai=f0213bab-637a-4f7c-9f40-bcb4683d3

https://youtu.be/rtG83_-G8dA

<https://ja.wikipedia.org/wiki/%E8%91%AC%E5%84%80>

https://search.yahoo.co.jp/search?p=%E8%91%AC%E5%BC%8F&x=wrt&aq=-1&ai=f6a03d53-88ed-42d9-8776-93a011d92430&ts=13113&ei=UTF-8&fr=top_ga1_sa

<https://ja.wikipedia.org/wiki/%E9%80%9A%E5%A4%9C>

<https://livejapan.com/ko/in-tokyo/in-pref-tokyo/in-akihabara/article-a0003097/>

일본 가정의 새해

22201873 손유진

일본 가정 행사에 대해 발표 할 2조의 손유진입니다

목차는 새해 가정 풍습, 새해 가정 음식, 새해 가정 놀이 순으로 발표합니다

새해 가정 음식은 음식 별로 의미도 같이 소개합니다

새해 가정 풍습의 첫 번째로는 연하장이 있습니다

연하장은 1월 1일에 새해의 인사와 감사의 말을 적어 보냅니다

두 번째는 오토시다마 입니다

오토시다마는 한국의 세뱃돈과 비슷하고

새해의 신에게 바쳤었던 떡에서 유래했으며

무늬가 있는 작은 봉투에 새 돈을 넣어 아이에게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오미쿠지입니다

운수확인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가 불운이면 사원이나 신사 마당에 묶어두는게 관례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오마모리입니다

신사나 사원에 판매하고 악령쫓기, 사랑, 재물의 목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새해 가정 음식의 첫 번째로는 오세치가 있습니다

일본요리를 새해 축하하며 먹는 요리입니다

건강과 번영, 행복을 의미하고 가족, 친구와 함께 공유한다고 합니다

오세치에 들어가는 음식과 의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치의 첫 번째 단에 들어가는 말린 청어알은 자손번영을, 검은 콩은 부지런하게 일하고 마귀를 쫓고, 멸치조림은 오곡 풍양, 홍백어묵의 붉은 색은 마귀, 백색은 신성함. 붉은 색과 백색은 행복을 의미하고 다테마키의 소용치는 모양은 문화발전과 학업 성취. 구리킨톤의 금색은 장사 번성과 부를 뜻합니다

오세치의 두 번째단에 들어가는 새우의 수염과 굽은 허리는 장수를 의미하고 연근의 여러 구멍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세치의 세 번째 단에 들어가는 표고버섯은 건강기원, 네자리 곤약은 마음수련, 곤부마키는

길조를 비는 음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조니는 한국의 떡국과 비슷하고 사무라이가 전쟁터에서 먹었던 영양죽에서 유래했으며 16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시코시소바는 한해의 마지막 식사로 먹고 긴 면은 장수를 의미하며 새해가 가기전에 먹지 못하면 불운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해의 가정놀이는 하네츠키와 카루타가 있습니다 하네츠키는 나무막대를 사용하는 전통놀이이며 배드민턴과 비슷하고 카루타는 전통카드놀이입니다 하네츠키놀이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출처]

<https://travel.rakuten.co.kr/campaign/ranking/new-year/>

https://livejapan.com/ko/in-tokyo/in-pref-tokyo/in-tokyo_train_station/article-a0000769/

<https://ja.wikipedia.org/wiki/%E5%BE%A1%E7%AF%80%E6%96%99%E7%90%86>

일본 지역별 가족 차이

22201899 김효은

도도부현(일본어: 都道府県 도도후켄)

일본의 광역 자치 단체인 도(都, 도쿄 도),

(지역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시도의 자치행정을 맡아서 하는 단체.)

도(道, 홋카이도),

부(府 후[*], 오사카 부와 교토 부),

현(県 겐[*], 나머지 43개)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 家族の呼び方 가족 호칭

かんけい 関係 관계	じぶん 家族 内 가족	たにん 家族 남의 가족
祖父 할아버지	そふ 祖父	あじいさん
祖母 할머니	そぼ 祖母	おばあさん
父 아버지	ちち 父	とう お父さん
母 어머니	はは 母	かあ お母さん
両親 부모님	りょうしん 両親	ご両親
兄 오빠, 형	あに 兄	にい お兄さん
姉 누나, 언니	あね 姉	ねえ お姉さん
弟 남동생	おとうと 弟	おとうと 弟さん
妹 여동생	いもうと 妹	いもうと 妹さん

도쿄, 표준어 남에게 자기가족을 말할때 남의 가족을 말할 때

남에게 자기가족을 말할 때

오오사카 칸사이, 혼슈

할아버지 : おじん, おっちゃん

할머니 : おばん, おばちゃん

아빠 : おとん

엄마 : おかん

오빠,형 : あにき, おにい

누나,언니 : あねき, おねえ

야마가타 토호쿠, 혼슈

할아버지 : じっつあま、じじちゃ

할머니 : ばっつあま、ばばちゃ

아빠 : おどっつあま、おっとう

엄마 : おがっつあま、おっかあ

오빠,형 : あんにゃ、あんちゃ

누나,언니 : あねご、ねえちゃ

일본 본토만 놓고 본다면 크게 동일본 방언(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주부), 서일본 방언(간사이, 주고쿠, 시코쿠), 규슈 방언의 셋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에도벤, 칸사이벤 등 지역 언어로 분류한다. 여기에 악센트와 요츠가나의 변별 등을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

이동을 통제했던 역사 때문인지 일본어의 사투리는 국토의 면적에 비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도쿄에서 먼 지역일수록 사투리의 이질감이 커진다.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최남단인 가고시마 지방의 가고시마벤(사츠마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암호로 사용되었을 정도.

요츠가나라? 현대 일본어의 많은 방언에서 이들 음운의 발음 통합이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하기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출처]

https://search.yahoo.co.jp/search?p=%E5%BC%81+%E3%81%98%E3%81%84%E3%81%95%E3%82%93+%E5%91%BC%E3%81%B3%E6%96%B9&fr=top_gal_sa&ei=UTF-8&ts=1039&aq=-1&oq=&at=&ai=cd0f0c48-0459-4268-8d9a-60ea0e3e40ef